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개념도 연구*

김민정[†]

움 심리상담연구소

최한나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을 상담해 온 상담전문가들의 경험을 통해 실제 상담에서 어떤 옹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옹호활동에 관한 공통 개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소수자, 비정규직·NGO활동가, 위기 노동자, 가정폭력·여성, 성폭력, 다문화, 탈북민, 국가 폭력, 학대 아동,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온 상담전문가 10인과 개별 면접을 실시하여, 실제 옹호활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년 이상 옹호활동을 하고 있는 상담자 17인에게 최종 추출된 76개의 상담자 옹호활동에 관한 진술문에 대해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 평정을 실시하였고, 다차원척도 분석 및 군집 분석을 통해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개념도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정서적 접근-행동적 접근’, ‘내담자 변화-환경 변화’의 2개 차원과 ‘심리적 옹호활동’, ‘내담자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 ‘내담자 관계망 강화와 사회자원 연계’, ‘내담자 보호활동과 보호체계 구축’, ‘상담전문가로서의 사회적 기여’ 등 5개 군집이 도출되었다. 중요도 평정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적 옹호활동’ 군집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상담자 교육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옹호활동, 옹호상담, 사회정의 상담, 사회정의 옹호상담, 개념도

* 본 연구는 김민정(2021)의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발췌, 수정한 내용임.

본 연구는 한국상담심리학회 2020차세대 연구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원고임.

† 교신저자 : 김민정, 움 심리상담연구소, (0660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 프라자 324호, Tel : 02-535-8531, E-mail : whitekimmj@hanmail.net

상담은 타인의 심리적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최근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적응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담자의 참여 활동을 통해 내담자에게 가해지는 사회 체계의 차별과 억압을 변화시키기 위한 상담 접근이 모색되고 있다(이소연, 서영석, 김재훈, 2018; 임은미, 2016; 임은미, 구자경, 2019; 정안숙, 2015; 최가희 2018; Goodman et al., 2004; Kiselica & Robinson, 2001; Vera & Speight, 2003). 이러한 접근을 ‘옹호상담’, ‘사회정의 상담’, ‘사회정의 옹호상담’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데, 개인 내적인 요인에서 원인을 찾는 전통적 심리치료 모델의 한계를 벗어나 내담자가 처한 환경과 사회적 맥락 안에서 내담자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에 상담자가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상담 이론과 차별성을 갖는다(임은미, 2016; Goodman et al., 2004; Sue & Sue, 2011; Vera & Speight, 2003).

옹호상담은 내담자가 사회 체계의 장애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오는 내담자를 기다리기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접근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임은미, 2015; 임은미, 여영기, 2015; 최가희 2018; Albee, 2000; Ivey & Collins, 2003; Kiselica, 2004). 옹호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위한 옹호와 예방적 접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 예방 교육과 같은 강연과 프로그램 설계, 외부 체계로부터 비롯된 내담자들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에 알리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입법기관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관심과 내

담자 개인의 변화를 뛰어넘는 체계적 변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이 요구된다(최가희, 2018; Goodman et al., 2004; Kiselica, 2004; Kiselica & Robinson, 2001; Ratt, 2009; Toporek, Lewis, & Crethar, 2009; Vera & Speight, 2003). 그러나 상담실 안에서의 상담자 역할에 더 익숙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상담자의 실천 행동을 강조하는 ‘옹호활동(advocacy)’이 아직 낮은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상담자들이 탈북민과 결혼이주자를 포함한 다문화 가정, 성소수자,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옹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동반자나 Wee Project처럼 우리 상담 영역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프로그램도 있다(설경옥, 임정임, 2013; 임은미, 2015; 임은미, 구자경, 2019). 이런 활동들이 옹호상담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학문적 논의도 부재한 상황에서 옹호활동을 여전히 상담자 개인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은 상담자들의 역할 갈등과 내담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소연 외, 2018; 임은미, 2015). 학교 상담자들이 윤리적 갈등을 겪는 상황 중 하나로 내담자가 학대 받고 있는 경우를 들었는데, 관련 기관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등의 체계적인 개입보다 학생에게 이롭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상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리거나 학생 의사에 따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강진령, 이종연, 손현동, 2007).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 진정성 부족 등 상담자의 기본적인 역량이 떨어지고 상담자의 편견으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미진, 이동훈, 고흥월, 김영하, 남현주, 2012). 학대와 다문화 청소년 상담은

옹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상담자 개인의 역량과 판단에 따라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담 현장에서는 이미 자연스럽게 옹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자 교육 과정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아 상담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고 있는 옹호활동이 전문적인 상담이 아닌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거나(임은미, 구자경, 2019), 여전히 상담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존재한다(이소연 외, 2018).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도움이 절실한 내담자들이다.

옹호상담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맥락에 근거한 체계적인 인식은 단시간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옹호역량을 가진 상담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들의 옹호역량을 강화하고 상담자 교육 과정에서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어떤 옹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담자들은 옹호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 상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자들의 활동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옹호활동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추출하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면 옹호상담의 실제와 이론적 담론 사이의 갭을 메우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자 교육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대 들어 복미를 중심으로 옹호상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3년 미국상담학회(ACA)에서 상담자의 옹호활동을 관여의 정도와 개입 영역, 수준에 따라 분류한 옹호모형(ACA Advocacy

Competency Domains)을 채택하고(Lewis, Ratts, Paladino, & Toporek, 2011; Ratt, 2009; Toporek et al., 2009), 2015년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역량(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Counseling Competence: MSJCC)을 인준하면서 옹호상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Carrola & Brown, 2018; Ratts, Singh, Nassar-McMillan, Butler, & McCullough., 2016). ACA가 채택한 옹호모형은 상담자의 참여 정도를 내담자와 함께하는(with client) 옹호와 내담자를 대신하는(in behalf of client) 옹호로 구분하고, 개입 수준은 내담자/학생(미시적 수준), 지역사회/학교(중간 수준), 공공영역(거시적 수준)의 3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6가지 차원에서 개입이 이루어진다. 함께하는 옹호가 내담자나 해당 공동체가 스스로 자신을 옹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 대신하는 옹호는 상담자가 불공정한 사회 체계의 변화를 위해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입 영역과 수준이 넓어지면서 내담자의 범위 또한 내담자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담자의 옹호활동도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파악해 불평등한 체계를 극복하도록 돕는 역량강화, 내담자의 조력자로서의 역할, 공공기관이나 지역사회와의 협업, 관련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확대된다. 미국학교상담자협회(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ASCA)에서는 옹호역량을 학교 상담자의 핵심 과제로 선언하고 학생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ACA 옹호모형을 학교 시스템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Trusty & Brown, 2005; Ratts, DeKruyf, & Chen-Hayes, 2007).

국내에서는 옹호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개관 논문(최가희, 2018)과 ACA 옹호모형을 학교상담 장면(임은미, 2015)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진로진학상담에 적용한 옹호상담 방안(임은미, 여영기, 2015), 사회정의에 기초한 진로상담과 상담자 역할 제시(이소연 외, 2018) 등 이제 막 학문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상담자의 옹호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작업(임은미, 2016; 임은미, 2017), 상담자의 일반 상담역량과 다문화 상담역량, 사회정의 옹호상담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임은미, 강혜정, 구자경, 2018)를 밝히는 등 점차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상담 영역에서 어떤 옹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옹호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옹호활동을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부각시키고 활동 영역을 지역과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옹호상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옹호상담의 핵심인 옹호활동에 대한 설명과 현재 우리 상담 영역에서 어떤 옹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ACA 옹호모형이 채택된 이후에 발표된 논문들 중에는 옹호활동을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만들고 ACA 옹호모형이나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역량(MSJCO)에 따른 상담자의 전략과 활동을 예시를 들어 설명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이소연 외, 2018; Constantine, Hage, Kindaichi, & Bryant, 2007;

Leibowitz-Nelson, Baker, & Nassar 2020; Toporek et al., 2009). 하지만 이는 실제 옹호활동을 토대로 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옹호활동을 하면서 상담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지식, 기술 등을 밝힌 일종의 지침에 가깝다. 이것이 옹호활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상담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논문의 사례들은 주로 북미의 다인종 사회로부터 비롯된 갈등과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를 예로 들어 개입 수준과 영역별로 필요한 옹호활동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상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옹호활동을 바탕으로 상담자들의 옹호활동에 대한 인식을 밝혀 그 결과가 이론적 모형과 우리 상담 현장에 부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담자들의 경험을 통해 옹호활동의 개념을 밝히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옹호활동의 유형은 설명하고 있지만 옹호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주와 개념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ACA 옹호모형에서는 상담자의 참여 정도와 개입 수준에 따라 6가지 유형의 옹호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이론적 모형의 초기 단계로, 이론적 모형을 통해 옹호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상담자들의 옹호활동 경험을 통해 이를 귀납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옹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상담자들의 경험을 탐색해 옹호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옹호활동의 차원과 범주를 밝힐 수 있다면 상담과 옹호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옹호상담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옹호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상담자의 옹호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번안해 타당화하거나(임은미, 2016), 한국 상담자를 위한 척도 개발과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졌다(임은미, 2017). 한국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척도 개발과 타당화 과정에서 옹호역량은 다문화 상담역량, 사회정치적 관심, 상담 경력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이 상담자의 옹호역량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옹호활동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옹호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상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상담자들의 옹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옹호활동의 개념을 밝히고 그 토대 위에서 옹호역량과 옹호상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나 성소수자, 학대 아동과 다문화 내담자 등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상담을 하면서 옹호활동을 지속해온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옹호활동에 대한 상담자의 경험적 인식을 탐색하고 각 차원과 군집, 중요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상담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10년 이상의 상담 경력과 옹호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인 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옹호활동에 대한 개념을 추출하고 이를 시각적인 공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개념도 방식을 사용하였다. 개념도 방식은 기존의 척도를 활용한 양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질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문조사 방식에서 응답자가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응답하는 대신 사회적 승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응답하려는 사회적 바람직성(김용석, 2010;

민문경, 안현의, 2014; 민문경, 이나빈, 안현의, 2015; Darcy, Lee, & Tracey, 2004; Miller et al., 2009; Miller & Sendrowitz, 2011)과 같은 편중요인을 제거하고 양적 분석방법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옹호상담과 옹호활동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상담자들을 표집에서 배제하고(김미진, 권경인, 2019; 임은미 외, 2018), 옹호활동을 지속해 온 상담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옹호활동에 대한 상담자들의 인식을 확인하여 귀납적 방식으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옹호상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고 그 토대 위에 상담자들의 옹호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에 필요한 근거 자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상담자가 인식하는 옹호활동의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상담자는 옹호활동을 어떠한 차원과 군집으로 인식하는가?

연구문제 3. 상담자가 옹호활동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도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개념도 연구 절차(민경화, 최윤정, 2007; Kane & Trochim, 2007)에 따라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진술문 통합 및 편집 과정 참여자, 최종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과정 참여자로 나뉜다. 각 과정별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상담자들의 옹호활동에 관한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해 상담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10년 이상의 상담 경력을 갖춘 상담자이면서 옹호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인 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옹호활동 대상에 대해 억압받는 집단의 내담자(client from oppressed groups, Vera & Speight, 2003)나 억압과 체제 장벽의 방해를 받는 내담자(oppression and systemic barriers interfere with clients, Toporek et al., 2009)로 표현을 하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학생이나 다문화 내담자를 예로 제시하였다(Constantine et al., 2007; Leibowitz-Nelson et al., 2020; Toporek et al., 2009). 옹호활동이 가장 필요한 대상과 영역으로 학생과 학교를 제시한 선행연구(임은미, 2015; Toporek et al., 2009)와 진로상담과 직업상담 분야에서의 사회정의에 기초한 접근(이소연 외, 2018; 임은미, 여영기, 2015),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성소수자와 탈북민의 인권 논란, 사회적 재난 상황에도 옹호와 사회정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선행연구(정안숙, 2015; 최가희, 2018)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비정규직·NGO활동가, 위기 노동자, 가정폭력·여성, 성폭력, 다문화, 탈북민, 국가 폭력, 학대 아동, 위기 청소년 분야에서 각 1명의 상담전문가를 선정하여 연구 참여자의 옹호활동 분야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겹치지 않도록 하면서 상담자 옹호활동의 공통적인 개념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선정 기준은 Overholser(2010)가 제시한 전문 분야의 상위 자격, 다년간의 임상 경험, 전문 분야의 최종 학위, 전문가 집단에서의 탁월함, 임상 기술에 대한 훈련 경험 등 5가지 범주와 단일 범주로 사용할 때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중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선정 기준을 토대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함께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속해 있는 상담전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상담전문가이면서 옹호상담 경력이 있는 상담자나 기관을 추천받았다. 추천이나 소개를 받은 21명의 상담자 중 옹호활동에 대한 풍부하고 전문적인 진술문을 얻기 위해 상담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10년 이상의 상담 경력을 갖춘 상담자이면서 옹호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인 상담자 10명에게 진술문 생성 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머지 상담자 중 8명은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와 옹호활동 분야가 겹치거나, 옹호활동 경력은 충족되지만 전문가 자격증이 없거나,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옹호활동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상담자들은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종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평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옹호활동 경력은 충족되지만 상담 관련 자격증이 없는 3명은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개념도 연구에서 참여자의 수에 대해 엄격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Trochim(1989)은 8~20명, Johnsen, Biegel과 Shafran(2000)은 10~20명, Kane과 Trochim(2007)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개별 면접 대상자의 수를 옹호활동의 분야가 겹치지 않는 상담전문가 10명으로 결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모두 여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48세였다. 상담 경력은 평균 15.9년, 옹호상담 경력은 7~24년으로 평균 12.8년이었으며, 옹호상담 경력은 연구

참여자가 옹호활동과 관련된 기관에 근무한 기간과 학회의 상담연구회나 단체 등 해당 분야에서 옹호활동을 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최종 학력은 석사 졸업 6명, 박사 수료 1명, 박사 졸업이 3명이었다. 소속 기관(복수 응답)은 대학 1명, 대학 부설 상담센터 1명, 사회복지 시설 1명, NGO 시민단체 6명, 공공 상담기관 1명, 사설 상담기관 3명이었다. 소지한 자격증(복수 응답)은 상담심리전문가 9명, 수련감독전문상담사 1명, 임상심리전문가 1명, 현실치료심리상담사 1급 1명, 심리상담사 2급 2명, 청소년상담사 3급 1명이었다. 연구 참여자 중 8명은 다문화 상담이나 옹호상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원에서 교과목으로 수강을 한 경우가 2명, 소속 기관의 교육이나 특강, 워크숍을 통해 수강을 한 경우가 4명, 2명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경우였다. 이 중 2명은 대학에서 각각 다문화 상담과 여성주의 상담 교과목을 강의한 경험이 있었다.

진술문 통합 및 편집 과정 참여자

개별 면접을 통해 수집된 진술문을 통합하고 편집하기 위해 연구자를 포함한 총 5명이 진술문 통합 과정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를 제외한 참여자는 상담 전공 교수 2명, 상담 전공 박사 과정 중인 상담자 1명, 상담 전공 박사 학위를 소지한 상담전문가 1명으로 모두 개념도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여자 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3명은 상담심리전문가 1급, 1명은 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44.2세, 상담 경력은 평균 14.8년이였다.

최종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과정 참여자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과정은 진술문 생성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9명과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옹호활동 분야가 겹치는 등의 이유로 개별 면접에는 참여하지 않은 상담자 8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모두 여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46.8세였다. 상담 경력은 평균 13.7년, 옹호상담 경력은 3.8~ 24년으로 평균 10.3년이였다.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옹호활동과 관련된 기관에 근무한 기간이나 학회의 상담연구회나 단체 등 해당 분야에서 옹호활동을 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옹호상담 경력을 산정하였다. 최종 학력은 석사 졸업 11명, 박사 수료 3명, 박사 졸업 3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소속 기관(복수 응답)은 대학 부설 상담센터 1명, 사회복지 시설 2명, NGO 시민단체 8명, 공공 상담기관 2명, 사설 상담기관 4명, 기업체 2명, 병원 1명이었다. 소지한 자격증(복수 응답)은 상담심리전문가 10명, 수련감독전문상담사 1명, 임상심리전문가 2명, 가족상담사 1급 1명, 현실치료심리상담사 1급 1명, 심리상담사 2급 4명, 청소년상담사 3급 1명이었다. 이 중 13명은 다문화 상담이나 옹호상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원에서 교과목으로 수강한 경우가 3명, 소속 기관의 교육이나 학회 특강, 워크숍 수강을 한 경우가 7명, 3명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경우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첫째,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진술문 추출을 위한 질문 목록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자의 옹호활동과 관련된 논문과 문헌을 검토하여 1차 질문 목록을 구성한 후 개념도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사 과정 중인 상담자 1인에게 초점 질문으로 적절한지, 질문 내용이 잘 이해되는지, 옹호활동에 대한 인식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인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였다. 상담의 효과나 성과, 상담자의 개입을 묻는 질문으로 혼동될 수 있는 질문을 제외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수정한 후, 2차 질문 목록은 청소년동반자와 양성평등상담소, 다문화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자 3인에게 옹호활동에 관한 예비 면접을 실시하고 피드백을 받아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옹호활동 경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이후 상담 전공 교수 1인으로부터 감수를 받아 최종 초점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에서는 차별과 억압을 변화시키기 위한 상담자의 전체적인 활동을 ‘advocacy’(Ramírez Stege, Brockberg, & Hoyt, 2017; Speight & Vera, 2008; Trusty & Brown, 2005)로, 상황에 따른 개별적인 개입을 ‘advocacy work 또는 advocacy action, advocacy intervention, advocacy activity’(Fickling & González, 2016) 등으로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advocacy’를 사용하되, 옹호로 표현하기 보다는 옹호활동으로 번역을 했을 때 연구 참여자들에게 더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어 ‘옹호활동(advocacy)’으로 용어를 정리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 요소와 이익 등에 대해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승

인 번호 SMWU-1911-HR-107-01)을 받아 연구 윤리 기준을 준수하여 연구 절차를 진행하였다.

셋째,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진술문을 수집하기 위해 상담전문가 10명과 개별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면접 시간은 50~70분이 소요되었다. 9명의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자가 직접 만나 개별 면접을 진행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 1명만 COVID-19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 화상 면접을 실시하였다. 개별 면접 후, 연구자가 면접 내용을 축어록으로 작성하고 연구자와 개념도 연구를 다수 수행한 박사 과정 중인 상담자 1인이 연구자가 작성한 축어록을 가지고 기초 진술문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인식을 존중하고 참여자의 표현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원칙(Kane & Trochim, 2007)으로 각자 기초 진술문 추출 작업을 진행한 후, 논의 과정을 통해 2개의 기초 진술문을 비교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옹호활동에 대한 인식과 표현에 최대한 가깝게 하나의 기초 진술문으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 당 각 52~69개의 기초 진술문을 추출하였으며, 수집된 기초 진술문은 598개였다. 작성된 기초 진술문에 대한 검토를 위해 10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면접 축어록과 기초 진술문 목록을 이메일로 보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검토 후 수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연구 참여자는 8명이었으며, 연구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연구 참여자가 옹호활동에 대한 진술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35개의 기초 진술문을 제외하고 총 563개의 기초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넷째, 진술문 통합 및 편집 단계에서는 진술문의 수를 100개 이하로 축약할 것을 권장한 Kane과 Trochim(2007)의 제안과 연구 참여자 2명 이상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진술문만 목록에 포함시키는 Bedi(2006)의 방식을 참고하여 2명 미만의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진술문 109개(19.3%)를 1차 제거하였다. 남은 진술문은 유사한 주제로 분류한 뒤, 개별 아이디어를 통합 진술문으로 묶는 과정을 거쳐 2차로 93개의 진술문으로 통합하였다. 이후 기초 진술문 추출 단계에 참여한 상담자 1인과 적절한 분류와 통합이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4개의 진술문으로 통합한 후, 연구자가 최종 진술문 형태로 기술하여 정리하였다. 이 단계에서 성소수자, 탈북민, 학대 아동 등으로 기술된 내용을 내담자로 통일하고, 옹호활동의 대상이 되는 내담자를 지칭할 때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도 함께 고민하였으나, 옹호활동이 대상이 되는 내담자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로 통일하였다. 74개의 진술문은 박사 과정 중인 상담자 1인과 개념도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상담전문가 1인이 기초 진술문을 잘 포괄하고 있는지, 진술문의 분류와 통합이 잘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1~5점(1점 = 전혀 적절하지 않다 ~ 5점 = 매우 적절하다) 기준으로 1차 평정을 하였다. 평정 결과, 21개의 진술문이 평균 4점 미만으로 나와 논의와 재분리, 수정 과정을 거쳐 76개의 최종 진술문으로 정리하였다. 76개의 진술문은 개념도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 전공 교수 2명이 기초 진술문의 내용과 의미를 손

상하지 않고 본질적인 의미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1~5점(1점 = 전혀 적절하지 않다 ~ 5점 = 매우 적절하다) 기준으로 2차 평정을 하였다. 그 결과, 15개의 진술문이 평균 4점 미만으로 나와 수정을 한 후, 수정한 내용이 최종 진술문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감수를 받아 총 76개의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다섯째, 최종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단계에서는 3년 이상 옹호활동 경력이 있는 17명의 상담자가 참여하였다. 도출된 최종 진술문으로 76개의 카드(9×3cm)를 제작하여 진술문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 평정을 위한 안내문과 함께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유사성 분류는 한 개의 진술문 카드를 한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고, 76개의 진술문 카드 전체를 한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남은 카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Kane & Trochim, 2007)만 제시하고 비구조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카드를 다 분류한 후에는 연구 참여자들이 각자 분류한 범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명명하도록 요청하고, 각각의 진술문이 상담자의 옹호활동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Likert 척도(1점 = 매우 중요하지 않다 ~ 5점 = 매우 중요하다)로 중요도 평정 작업도 함께 실시하였다. 최종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은 참여자 당 40~65분이 소요되었으며, 5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개념도 제작을 위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자 옹호활동에 관한 진술문들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자료를 가지고 동일 범주로 묶은 진술문은 0, 다른 범주로 묶은 진술문은 1로 코딩하여 연구 참여자의 수만큼 76×76의 개인별 유사성 행렬표(similarity matrix)를 만들고, 17명의 개인별 유사성 파일을 합산하여 집단 유사성 행렬표(GSM: Group Similarity Matrix)를 제작하였다. 둘째, 집단 유사성 행렬표(GSM)를 가지고 SPSS 25.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ALSICAL(Alternating Least Squares sCALing) 방법으로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적절한 차원의 수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셋째,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해 산출된 각 진술문의 차원 상 좌표 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Ward 방법을 사용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먼저 실시한 후, 군집의 적절성과 하위 군집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중심 연결법(centroid linkage)과 평균 연결법(average linkage)에 의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개념도를 작성하였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최종 진술문의 중요도를 평정한 자료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먼저, 진술 타당도(testimonial validity)와 군집 분석 결과 타당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진술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접 축어록과 도출한 기초 진술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자의 관점과 다르게 도출된 표현이나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35개의 기초 진술문은 연구 참여자가 옹호활동에 대한 진술문이

아니라고 확인하여 삭제하였다. 둘째, 진술문을 추출할 때 가급적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 부분도 연구 참여자의 검토를 요청하여 8명의 연구 참여자가 수정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최종 진술문의 유사성 분류 작업을 할 때 분류한 각 범주에 대한 명칭을 붙여달라고 요청하여 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하였다.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리에 기반해 군집을 분류하는 Ward 연결법 외에 중심 연결법과 평균 연결법을 함께 실시하였다. 중심 연결법과 평균 연결법의 군집분석 결과를 Ward 연결법과 비교하여 군집의 적절성과 하위 군집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번호를 기준으로 홀수 집단과 짝수 집단을 나눈 후 두 집단의 유사성 행렬표(GSM)를 가지고 반분 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를 계산하였다. 홀수 참여자($N = 8$)와 짝수 참여자($N = 9$)의 GSM 상관은 .732($p < .001$)이었으며, Spearman-Brown 공식으로 교정한 값은 .853이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번호를 홀수 집단과 짝수 집단으로 나눠 두 집단의 스트레스 지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홀수 집단 참여자의 스트레스 지수는 0.309, 짝수 집단 참여자의 스트레스 지수는 0.311로 개념도 연구의 적절한 스트레스 지수 기준을 충족하였다. 셋째, 진술문 평정 자료를 가지고 평균 평정 간 신뢰도(average rating-to-rating reliability)를 확인하였다. 진술문에 대한 평정 자료를 토대로 문항 내적 합치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s α 는 .879였다.

결 과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진술문의 내용과 차원

진술문의 통합 및 편집과 1, 2차 평정 과정을 거쳐 확정된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76

개의 최종 진술문 내용과 군집 및 중요도는 표 1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76개의 최종 진술문을 최소 6개에서 최대 14개 범주로 분류하였다($M = 9.41, SD = 2.45$).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차원의 수에 따른 합치도(stress)와 설명량(R^2)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진술문 내용과 군집 및 중요도

진술문		중요도 (M)	표준편차 (SD)
군집 1	심리적 옹호활동	4.54	
1-1	내담자 특성에 대한 민감성과 존중	4.54	
1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가 느끼는 소외감과 어려움을 공감한다.	4.76	.56
2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과 욕구를 타당화 한다.	4.47	.51
3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다.	4.53	.62
5	내담자가 힘든 가운데에도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알아준다.	4.82	.39
7	내담자의 힘과 자원을 존중한다.	4.88	.33
13	내담자가 일상에서 겪는 편견과 차별이 상담 장면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59	.50
32	내담자보다 앞장서서 하지 않는다.	4.24	.75
33	내담자 스스로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4.41	.61
42	내담자에게 불편한 언어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를 기울인다.	4.18	.39
1-2	내담자 옹호를 위한 치료적 관계 형성	4.53	
8	내담자의 소외감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4.82	.39
11	내담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의 경험을 이해한다.	4.53	.62
12	내담자의 정체성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4.82	.39
14	상담자와의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내담자가 기존 경험과는 다른 관계 경험을 하도록 한다.	4.35	.49
15	내담자를 심리적으로 지지한다.	4.53	.62
16	내담자와 온전히 함께 견뎌준다.	4.65	.60
69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한다.	4.71	.47
70	상담자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경험을 상담에 활용한다.	3.88	.85

표 1.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진술문 내용과 군집 및 중요도 (계속 1)

진술문		중요도 (M)	표준편차 (SD)
군집 2	내담자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	4.33	
4	내담자의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정의 한다.	4.24	.56
6	내담자가 겪는 마음이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겪는 현상임을 알려준다.	3.65	.78
10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소외로부터 비롯된 내담자의 특성을 이해한다.	4.53	.51
17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4.59	.50
18	내담자가 처해 있는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내담자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4.53	.51
19	내담자가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4.53	.62
23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사회적 지원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4.47	.62
31	내담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한계를 설정한다.	4.24	.66
34	내담자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53	.51
36	지원을 받는 내담자가 수혜자로 남지 않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4.35	.60
43	내담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3.94	.65
군집 3	내담자 관계망 강화와 사회지원 연계	3.90	
3-1	심리-사회적 관계망 형성 촉진	3.72	
9	신뢰 관계 형성을 어려워하는 내담자와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간다.	3.94	.74
28	내담자가 상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동 상담이나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	3.53	.80
35	내담자가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 해결한다.	3.88	.48
39	내담자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도록 돕는다.	3.59	.61
40	내담자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참여를 격려한다.	3.65	.60
45	내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함께 찾아본다.	3.65	.49
62	내담자들이 집단상담을 통해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3.82	.63
3-2	구조적-현실적 사회지원망 연계	4.00	
21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서는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4.47	.51

표 1. 상담자의 응호활동에 관한 진술문 내용과 군집 및 중요도 (계속 2)

진술문		중요도 (M)	표준편차 (SD)
22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심리 상담과 사회복지적인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4.53	.51
24	내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제공한다.	3.94	.65
25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환경을 만든다.	4.18	.52
26	기관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내담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4.06	.65
30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결한다.	4.24	.56
38	내담자에게 필요한 멘토를 찾아 연결해준다.	3.41	.50
41	내담자가 사회복지사나 기관 등 필요한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3.71	.47
44	내담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기관을 알려준다.	3.88	.33
46	경제적으로 어려운 내담자는 공공 기관의 지원이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3.88	.69
47	내담자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병원으로 연계한다.	4.06	.74
48	내담자에게 필요한 법률지원을 연계한다.	4.00	.61
49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연결해준다.	3.59	.71
군집 4	내담자 보호활동과 보호체계 구축	3.95	
4-1	내담자 지지와 보호활동	3.95	
37	내담자에게 필요한 자원 정보를 찾아 리스트를 만든다.	3.41	.61
51	법정 지원활동을 통해 내담자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한다.	3.65	.60
54	내담자에게 필요한 심리적 소견서를 작성한다.	4.12	.60
64	내담자가 학대를 받고 있을 때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개입한다.	4.47	.62
67	내담자를 쉼터나 보호기관으로 연계한다.	4.12	.69
4-2	상담 환경 조성 및 적극적 개입	3.94	
27	경제적으로 어려운 내담자에게 상담료를 낮춰 부담을 줄여준다.	3.71	.68
29	위기 현장에 함께 머물며 내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3.71	.77
50	내담자가 법정이나 경찰서에 갈 때 필요하다면 함께 동행한다.	3.65	.78
60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4.00	.70
63	내담자 보호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내담자의 부모와 협력한다.	3.94	.82

표 1.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진술문 내용과 군집 및 중요도 (계속 3)

진술문		중요도 (M)	표준편차 (SD)
65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는 의무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한다.	4.59	.50
66	내담자를 위협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 학교와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4.00	.61
군집 5 상담전문가로서의 사회적 기여		3.89	
5-1 옹호활동을 위한 연대와 전문적 활동		4.06	
20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다.	4.12	.69
57	옹호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기꺼이 협업한다.	4.00	.70
58	내담자 옹호활동을 위해 다른 상담자들과 협력한다.	4.06	.65
59	내담자 옹호활동을 위해 다른 단체들과 연대한다.	3.88	.78
61	사회적 편견과 차별, 공동체를 저해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4.06	.82
68	상담자로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인식을 갖는다.	4.47	.62
71	옹호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한다.	4.29	.58
72	옹호활동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상담연구회를 만든다.	3.59	.93
73	사회적 약자와 사회구조적 맥락에 대해 연구한다.	4.06	.74
74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를 한다.	3.71	.77
75	전문가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낸다.	4.24	.56
76	내담자 옹호의 관점으로 상담자 교육 과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4.18	.63
5-2 사회적 변화를 위한 적극적 참여활동		3.41	
52	내담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한다.	3.76	.66
53	내담자를 위해 탄원서 서명운동을 한다.	3.53	.71
55	사회적 지지와 보호가 필요한 내담자의 상황을 언론에 알린다.	3.24	.56
56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를 위해 SNS 활동을 한다.	3.12	.60

주. 표에 제시된 군집과 중요도는 이후 군집분석 결과 및 중요도 평정 결과에 따른 것임.

다차원척도 분석은 각 진술문의 유사성에 따른 거리 분포를 시각적 공간으로 변환하는 데, 이 공간의 적절한 차원의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스트레

스(stress) 지수에 따른 합치도이다. 합치도는 연구 참여자가 평정한 유사성 자료가 다차원 척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공간상의 거리에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나타낸다(박광배, 2000).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연구 참여자들이 평정한 유사성 자료와 공간상에 나타난 거리의 불일치가 크고 자료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스트레스 지수가 작을수록 합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박광배, 2000; Kane & Trochim, 2007).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산출된 각 차원별 스트레스 지수를 점으로 표시하여 스트레스 플롯(stress plot)을 그리는데, Kruskal(1964)은 스트레스 플롯이 처음 크게 꺾이는 지점(elbow), 즉 차원의 수가 증가하여도 합치도의 증가가 크지 않은 지점의 차원의 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지수의 범위도 함께 고려하였다. 스트레스 지수는 차원의 수가 많을수록 감소하는데, 차원의 수가 많을수록 다차원척도 분석의 유용성 또한 감소한다(박광배, 2000). Kane과 Trochim(2007)은 38개의 개념도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차원척도 분석에 적합한 스트레스 지수 범위를 .205~.365로 제시하였다. 차원의 수와 의미를 결정하고 해석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해석 가능성과 간명성이다(Gnanadesikan, 1997).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차원은 다차원척도 분석의 결과를 복잡하게

만들고, 차원의 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지수는 감소하지만 그만큼 해석 가능성과 간명성은 낮아진다(박광배, 2000). 합치도와 스트레스 플롯, 스트레스 지수의 범위, 해석 가능성과 간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자료의 정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낮은 차원의 단순한 공간으로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차원 스트레스 지수가 .297로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적절한 스트레스 지수 범위인 .205~.365를 충족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플롯이 처음 크게 꺾이는 지점도 2차원이었다. 그러나 3차원 스트레스 지수도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스트레스 지수 범위를 충족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차원과 3차원 공간에서 나뉜 군집의 진술문 내용도 함께 고려하였다. 2차원과 3차원 군집의 진술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2차원 군집의 진술문 내용이 더 뚜렷하게 구분되고 유사성이 높은 진술문으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합치도와 스트레스 플롯, 스트레스 지수의 범위, 해석 가능성과 간명성, 진술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의 차원의 수를 2차원으로 결정하였다.

2차원으로 차원의 수를 결정한 후, 각 차원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기 위해 2차원 공간의 진술문 분포를 살펴보았다. x축과 y축

표 2. 차원별 스트레스 지수와 설명량(R^2)

차원의 수	합치도(stress)	설명량(R^2)	R^2 증가량
1	.516	.403	-
2	.297	.562	.159
3	.219	.632	.070
4	.176	.684	.052
5	.148	.721	.037

상에서 가까이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성이 높다고 인식한 것을 의미하며, 멀리 떨어진 진술문은 유사성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Trochim & McLinden, 2017). 즉, 가까이 있는 점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점들에게 비해 보다 빈번하게 같은 범주로 분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의 위치와 거리, 좌표 값이 가지는 의미와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문의 유사성을 범주화 할 때 사용한 범주의 제목 등을 통해 드러난 인지적 기준을 함께 참고하여 1차원과 2차원의 명을 설정하고자 1차원 x 축과 2차원 y 축의 양극단에 위치한 진술문들을 좌표 값을 기준으로 절대 값이 큰 순서로 정리하고 양극단의 진술문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1차원 x 축 정적 방향의 진술문 내용을 살펴보면, ‘26 기관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내담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46 경제적으로 어려운 내담자는 공공 기관의 지원이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47 내담자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병원으로 연계한다’, ‘49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연결해준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적 차원에서 개입을 하는 내용의 진술문들이 위치하였다. 반면에, 1차원 x 축 부적 방향은 ‘15 내담자를 심리적으로 지지한다’, ‘14 상담자와의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내담자가 기존 경험과는 다른 관계 경험을 하도록 한다’, ‘16 내담자와 온전히 함께 견뎌준다’, ‘8 내담자의 소외감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와 같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내담자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지지와 수용, 내담자와의 관계 경험 등 정서적 개입을 하는 내용의 진술문이 위치하였다. 진술문의 위치를 살펴볼 때,

1차원 x 축 부적 방향의 극단은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고 정적 방향으로 갈수록 ‘11 내담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의 경험을 이해한다’, ‘69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한다’와 같이 이해와 성찰 등 인지적 측면의 진술문이 위치하고 더 정적 방향으로 갈수록 행동적인 측면으로 변화해 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차원은 ‘옹호활동의 개입 초점’을 기준으로 ‘정서적 접근-행동적 접근’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2차원 y 축 정적 방향에는 ‘18 내담자가 처해 있는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내담자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6 내담자가 겪는 마음이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겪는 현상임을 알려준다’, ‘17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2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과 욕구를 타당화 한다’와 같이 사회구조적 맥락 안에서의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적절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술문이 위치하였다. 반면에, 2차원 y 축 부적 방향에는 ‘55 사회적 지지와 보호가 필요한 내담자의 상황을 언론에 알린다’, ‘53 내담자를 위해 탄원서 서명운동을 한다’, ‘52 내담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한다’, ‘56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를 위해 SNS 활동을 한다’와 같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구조적 맥락을 바꿔나가기 위해 상담자가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2차원은 ‘옹호활동의 방향’을 기준으로 ‘내담자 변화-환경 변화’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좌표 값을 기준으로 각 차원별 절대 값이 큰 순서로 정렬한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각 차원별 정적 방향과 부적 방향에 위치한 진술문

1차원(x 축) 정적 방향	1차원(x 축) 부적 방향	2차원(y 축) 정적 방향	2차원(y 축) 부적 방향
26 (1.404)	15 (-1.804)	18 (1.398)	55 (-1.411)
46 (1.389)	14 (-1.733)	6 (1.389)	53 (-1.360)
47 (1.384)	16 (-1.692)	17 (1.362)	60 (-1.345)
25 (1.378)	20 (-1.689)	2 (1.332)	52 (-1.341)
49 (1.363)	8 (-1.631)	31 (1.284)	56 (-1.337)
22 (1.312)	12 (-1.520)	43 (1.269)	50 (-1.331)
41 (1.310)	11 (-1.496)	19 (1.265)	66 (-1.302)
44 (1.308)	70 (-1.349)	4 (1.264)	65 (-1.299)
48 (1.289)	3 (-1.276)	34 (1.260)	59 (-1.263)
30 (1.238)	69 (-1.268)	33 (1.257)	74 (-1.259)

주. 표 안의 수치는 진술문의 번호(좌표 값)임.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군집과 중요도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76개 진술문에 대한 다차원분석 결과 생성된 2차원 좌표 값을 데이터로 유사성에 따른 군집으로 분류하기 위해, 2차원 공간에서 겹치지 않고 진술문의 거리에 근거하여 군집을 나누는 Ward 연결법(Kane & Trochim, 2007)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와 군집의 수가 참여자들이 분류한 범주의 개수를 초과하지 않고, 군집으로 나뉜 진술문들이 유사성이 있어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는지를 확인할 것과 군집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 Bedi(2006)의 기준을 함께 참고하였다. 또한, 군집의 진술문 내용에 따른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해석 가능한 진술문으로 묶인 군집의 수를 선택할 것을 강조한 Trochim과 McLinden (2017)의 제안을 함께 고려하였다.

먼저, Ward 연결법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화 일정표 상의 계수 변화와 덴드로그램을 통해 본 연구의 적절한 군집수는 3~6개인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최종 진술문을 최소 6개에서 최대 1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유사성 분류 결과를 함께 참고하였다($M = 9.41, SD = 2.45$). 셋째, 같은 군집으로 묶인 진술문이 유사한 진술문으로 나뉘었는지 진술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진술문들의 유사성과 개념적 구분 가능성, 군집의 해석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5개의 군집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군집의 이름을 명명하기 위해 같은 군집 내에 속한 진술문들의 내용과 좌표 상에서 위치하는 진술문의 상대적 거리를 함께 고려하였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실시한 중심 연결법과 평균 연결법의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를 Ward 연결법 결과와 비교하면서

군집 내용의 적절성과 하위 군집을 함께 확인하였다. 1차로 분류된 5개의 군집 중 1개의 군집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군집을 2개의 하위 군집으로 나누어 총 5개 군집과 9개의 하위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Trochim과 McLinden (2017)은 차원 상에서 군집이 차지하는 넓이가 넓을수록 군집 내용의 의미가 넓고 좁을수록 그 의미가 좁다고 하였는데, 넓은 군집은 그만큼 하위 군집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 진술문들의 유사성과 좌표 상에서 위치하는 진술문의 상대적 거리, Ward 연결법과 중심 연결법 및 평균 연결법의 덴드로그램을 함께 비교한 본 연구의 하위 군집 분류 결과도 이와 일치하였다. 5개 군집과 9개 하위 군집으로 분류된 각 군집 내 진술문들의 개념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내포하면서도 다른 군집과

구별될 수 있는 군집 명을 정하기 위해 전체 군집과 하위 군집에 속한 진술문 내용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성 분류 후 명명한 범주의 이름과 분류 기준을 함께 검토하여 최종 군집 명을 결정하였다. 군집 1은 옹호활동의 기본인 ‘심리적인 옹호활동’, 군집 1의 하위 군집은 ‘내담자 특성에 대한 민감성과 존중’, ‘내담자 옹호를 위한 치료적 관계 형성’ 2개로 분류하였다. 군집 2는 사회구조적인 맥락 안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내담자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으로 명명하였다. 총 76개의 진술문 중 가장 작은 11개(14.5%)의 진술문이 포함된 군집 2는 군집분석 결과와 진술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위 군집을 분류하지 않았다. 군집 3과 4는 내담자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옹호활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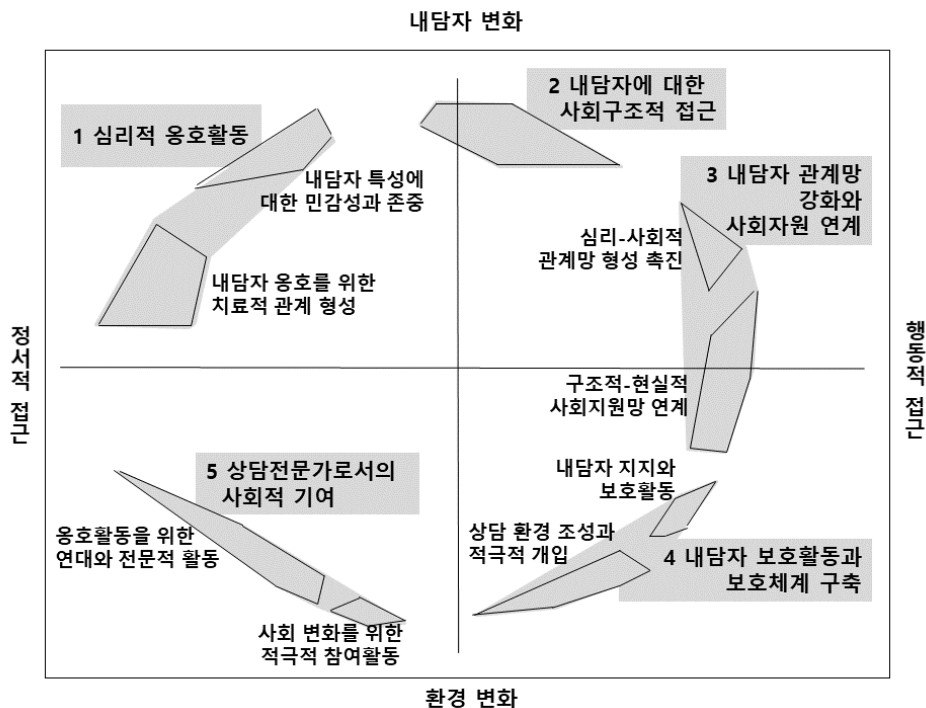


그림 1.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개념도

포함되었다. 군집 3은 ‘내담자 관계망 강화와 사회자원 연계’로 명명하고 ‘심리-사회적 관계망 형성 촉진’, ‘구조적-현실적 사회지원망 연계’ 2개의 하위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군집 4는 ‘내담자 보호활동과 보호체계 구축’으로 명명하고 ‘내담자 지지와 보호활동’, ‘상담 환경 조성’과 ‘적극적 개입’ 2개의 하위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군집 5는 ‘상담전문가로서의 사회적 기여’로 명명하고, ‘옹호활동을 위한 연대와 전문적 활동’, ‘사회적 변화를 위한 적극적 참여 활동’ 2개의 하위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명명한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5개 군집과 9개 하위 군집, 각 군집에 속한 진술문은 표 1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2개의 차원명과 각각의 군집 명을 통합하여 하나의 그림 형태로 그린 최종 개념도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76개의 진술문이 상담자의 옹호활동으로서 얼마나 중요하지를 5점 Likert 척도(1점 = 매우 중요하지 않다 ~ 5점 = 매우 중요하다)로 평정하도록 요청한 결과, 각 진술문의 중요도 평균과 표준편차, 5개 군집과 9개 하위 군집의 중요도 평균은 표 1에 함께 제시하였다.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76개의 진술문 전체에 대한 중요도 평균은 4.12였으며, 각 진술문의 중요도 평균은 최고 4.88에서부터 최저 3.12까지 분포하였다. 76개의 진술문의 중요도는 모두 3점(보통이다)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군집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군집 1 심리적 옹호활동($M = 4.54$)이 가장 높고, 군집 2 내담자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M = 4.33$), 군집 4 내담자 보호활동과 보호체계 구축($M = 3.95$), 군집 3 내담자 관계망 강화와 사회자원 연계($M = 3.90$), 군집 5 상담전문가로서의 사회적 기여($M = 3.89$) 순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을 상담해 온 상담전문가들의 경험을 통해 실제 상담에서 어떤 옹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공통 개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을 상담해 온 상담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한 옹호활동에 관한 76개의 진술문과 개념도를 통해 드러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CA 옹호모형(Ratt, 2009; Toporek et al., 2009)이나 상담자의 실천 행동(Constantine et al., 2007; Leibowitz-Nelson et al., 2020; Toporek et al., 2009)을 강조한 선행연구에서는 행동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두고 옹호활동을 지침의 형태로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인 옹호와 사회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 행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넓은 개념으로 옹호활동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들이 상담실 밖에서의 실천 행동만이 아니라 내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부터 옹호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담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충분히 들어주며 내담자의 자원을 찾아 지지하고 존중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소외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심리적 옹호활동으로 인식하고 중요한 옹호활동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옹호활동은 상담실 밖에서 상담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상담 이외의 활동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내담자의 소외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상담실 안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과 옹호활동이 필요한 위기의 현장에서 정서적 옹호활동과 행동적 옹호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상담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 예로 ‘35 내담자가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 해결한다.’, ‘36 지원을 받은 내담자가 수혜자로 남지 않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다.’와 같은 진술문들은 상담자로서의 역할 갈등이나 사회복지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역할 갈등을 겪을 때 무엇을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진술문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원조차도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들은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자원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상담자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기초 진술문 작업을 통해 도출된 진술문이다. 내담자들이 사회자원을 일회성으로 지원받는 수혜자로 남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지원을 받고 사회자원을 활용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야말로 상담자들이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는 옹호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 시스템으로만 접근을 하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의 역량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혜자로 남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많이 겪는다. 그럴 때 마음 상하는 걸 같이 공감하고, 내 주장도 하면서 원하는 자원은 제공받는 것. 상담을 통해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옹호활동이라는 연구

참여자의 설명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에게 상담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가상의 사례를 통해 ACA 옹호모형을 상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설명하였는데(Constantine et al., 2007; Leibowitz -Nelson et al., 2020; Toporek et al., 2009),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양한 옹호활동이 우리 상담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ACA 옹호모형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옹호활동 범위가 내담자와 내담자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 전체로까지 확대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이 전통적 상담의 경계를 넘어 옹호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5 내담자가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 해결한다.’, ‘41 내담자가 사회복지사나 기관 등 필요한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5 내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함께 찾아본다.’, ‘46 경제적으로 어려운 내담자는 공공 기관의 지원이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와 같은 진술문들을 보면 ACA 옹호모형에서 상담자의 참여 정도를 ‘내담자와 함께하는(with client)’ 형태와 ‘내담자를 대신하는(in behalf of client)’ 형태로 구분한 것처럼 다양한 수준의 옹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31 내담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한계를 설정한다.’, ‘34 내담자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와 같은 진술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옹호활동의 한계 또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상담 현장에서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다양한 수준에서 옹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상담 접근을 ‘옹호상담’, ‘사

회정의 상담', '사회정의 옹호상담'으로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옹호활동의 개념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 목적과 '사회정의'라는 용어로 인한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하는 일부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담자의 조력활동을 강조(Kiselica & Robinson, 2001)하는 옹호상담이라는 명칭을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상담 접근이 상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우리 상담 현실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찾으려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내담자를 위한 옹호뿐만 아니라 상담자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로 옹호활동을 인식하였다. 이는 상담자들이 사회구성원 누구도 억압과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 체계를 구현하는데 공헌해야 한다는 Kiselica와 Robinson(2001)의 제안과 맥이 통하는 부분이다. ACA 옹호모형(Ratt, 2009; Toporek et al., 2009)에서는 내담자의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 결과나 자료를 제공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옹호(Systems Advocacy)나 사회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정책입안자들을 설득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하거나 대중의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는 공공영역(Public Arena)에서의 옹호활동을 제시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문을 통해 우리 상담 현장에서도 이러한 옹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52 내담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한다.', '55 사회적 지지와 보호가 필요한 내담자의 상황을 언론에 알린다.', '68 상담자로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인식을 갖는다.', '73 사회적 약

자와 사회구조적 맥락에 대해 연구한다.', '74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를 한다.', '75 전문가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낸다.', '76 내담자 옹호의 관점으로 상담자 교육 과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와 같은 진술문들은 상담자들이 연구와 강의, 타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는 등의 옹호활동을 통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상담자 옹호활동의 차원은 '옹호활동의 개입 초점'이 정서적 접근 중심인지, 행동적 접근 중심인지에 따른 정서적 접근-행동적 접근 차원과 '옹호활동의 방향'이 내담자 변화 중심인지, 환경 변화 중심인지에 따라 내담자 변화-환경 변화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정서적 접근-행동적 접근 차원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이해를 바탕으로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이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자원을 연계하는 활동 차원이다. Tracey, Lichtenberg, Goodyear, Claiborn과 Wampold(2003)은 치료적 개입의 공통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에서 정서(feeling)-사고(thinking) 차원과 상담 안에서 발생하는 활동-상담 외부에서의 활동 차원으로 정서와 사고가 차원으로 구분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정서와 인지적 이해가 옹호활동 개입 초점의 한 부분으로서 차원이 아니라 범주 수준에서 구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행동적 접근'을 옹호활동(advocacy)의 한 범주로 인식한 것으로, 불합리한 사회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상담자의 실천 행동인 옹호활동과 옹호상담 접근을 강조한 선행연구

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내담자 변화-환경 변화 차원은 내담자를 도와 내담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과 내담자를 둘러싼 사회구조적 맥락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 영역으로 인식한 것으로, ACA 옹호모형에서 개별적인 내담자에게 초점을 맞춘 미시적 수준에서 내담자가 속한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영역의 거시적 수준으로 개입 수준이 점차 확대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 교육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1차원 옹호활동 개입 초점의 정서적 접근 영역과 2차원 옹호활동 방향의 내담자 변화 영역은 ‘상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를 사회구조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그들의 차별과 소외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는 정서적 옹호활동이 상담을 통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회구조적 맥락과 옹호의 관점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1차원 옹호활동 개입 초점의 행동적 접근 영역과 2차원 옹호활동 방향의 환경 변화 영역은 기존의 상담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상담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한 채 상담 이외의 활동처럼 다뤄졌던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러한 옹호활동이 상담 현장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고 상담자 교육에서 공식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상담자 발달 수준에 맞춰 초기와 후기 단계로 나누어 사회정의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제시를 하거나(Lewis, 2010), ACA 옹호모형과 대학의 실습 모델을 혼합하여 대학원 과정으로 채택하

는 등 옹호활동을 상담자 교육 과정에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례(Mallinckrodt, Miles, & Levy, 2014)를 참고해 볼 만 하다. 또한, 이미 상담 현장에서 옹호활동을 먼저 해온 상담자들의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36 지원을 받는 내담자가 수혜자로 남지 않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다.’는 진술문처럼 내담자들에게 필요한 사회자원을 연계할 때 일회성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 남지 않고 내담자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옹호의 관점에서 사회자원을 연계하는 방법이나 사회자원을 찾아내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야말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에게 가장 필요할 뿐 아니라, 상담자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옹호활동이지만 그동안 너무나 간과되어 왔던 부분으로 보인다.

다섯째, 선행연구에서 가상의 사례를 통해 제시(Constantine et al., 2007; Leibowitz-Nelson et al., 2020; Toporek et al., 2009)한 내용들이 실제 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군집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들이 옹호활동을 단순히 상담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군집 1 심리적 옹호활동) 사회 체계적 맥락 안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고(군집 2 내담자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 그 토대 위에서 내담자에게 필요한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돕고 사회자원을 연계하며(군집 3 내담자 관계망 강화와 사회자원 연계), 내담자 보호활동과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활동(군집 4 내담자 보호활동과 보호체계 구축)뿐만 아니

라 상담전문가로서 사회에 기여하는(군집 5 상담전문가로서의 사회적 기여)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상담자 옹호활동에 관한 진술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진술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가 느끼는 소외감과 어려움을 공감한다($M = 4.76$)’, ‘5 내담자가 힘든 가운데에도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알아준다($M = 4.82$)’, ‘7 내담자의 힘과 자원을 존중한다($M = 4.88$)’ ‘8 내담자의 소외감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M = 4.82$)’, ‘12 내담자의 정체성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M = 4.82$)’ 등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5개 진술문이 모두 군집 1에 해당하는 진술문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옹호활동 중에서도 심리적 옹호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에게 심리적 옹호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옹호 관점에서의 상담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을 상담해 온 상담자들을 통해 실제 상담에서 어떤 옹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옹호활동의 공통 개념을 도출하여 상담자들의 옹호활동에 대한 인식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상담자의 옹호활동을 강조한 선행연구들은 ACA 옹호모형이나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역량(MSJC)을 가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경우가 많았

다(이소연 외, 2018; Constantine et al., 2007; Leibowitz-Nelson et al., 2020; Toporek et al., 2009). 이것이 옹호활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상담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상담에서 옹호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실 안에서의 상담과 옹호활동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을 상담해 온 상담전문가들을 통해 옹호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옹호활동이 상담실 밖에서 별개로 이루어지는 상담 이외의 활동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상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과의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인식을 확인한 것은 상담자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내담자와의 일정한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기존의 상담 교육으로 인해 상담을 여전히 좁은 의미로 한정하고 옹호활동을 상담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으로 간주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은 내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을 상담실 안으로 한정시켜 역할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내담자와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한 상담자만큼 내담자의 차별과 소외의 고통을 이해하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을 위해 ‘상담’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상담자 교육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상담자 옹호 활동에 대한 주요 차원과 군집을 밝혀내고 해석을 통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옹호활동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추출하여 옹호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대한 개념의 확인은 상담자의 교육과 훈련에 대해 실제적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들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맥락과 옹호의 관점에서 상담자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상담자들의 옹호활동에 대한 다면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상담자들이 옹호활동을 통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옹호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상담자 개인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상담자 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공통 개념을 추출하고자 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전문가들과 개별 면접을 통해 옹호활동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였다. 이는 상담자의 관점에서 옹호활동 경험과 인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담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옹호활동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내담자들을 통해 내담자의 변화와 상담 과정

에 대해 탐색을 하거나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점을 함께 조사하여 옹호활동에 대해 좀더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수의 상담전문가와 면접을 통해 옹호활동에 관한 개념을 탐색하였다. 개념도 연구를 위한 적정 연구 대상자의 수는 확보하였지만 모든 옹호활동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제한이 따른다. 또한, 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남성 상담자를 찾지 못하여 연구 참여자가 모두 여성 상담자로 이루어지는 등 적절한 표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여성 상담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분야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적절한 표집과 연구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옹호활동에 관한 공통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성소수자, 비정규직·NGO 활동가, 위기 노동자, 가정폭력·여성, 성폭력, 다문화, 탈북민, 국가 폭력, 학대 아동, 위기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명의 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되도록 활동 분야가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제시된 다양한 옹호활동 분야를 참고하였다. 다양한 영역의 상담전문가를 선정한 또 다른 이유는 같은 분야의 상담전문가를 선정하게 되면 옹호활동에 관한 공통 개념이 도출되기 보다는 한정된 분야의 옹호활동에 관한 개념이 추출될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상담 분야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추출된 563개의 진술문을 통합·편집하는 과정에서 2명 미만의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진술문을 제거(빈도 2 미만)한 후 나머지 진술문을 가지고 1, 2차 평정

과정을 거쳐 76개의 최종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옹호활동 전반에 관한 공통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 설계 과정부터 나름의 안배를 하였으나 옹호활동에 대한 모든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좀더 다양한 옹호활동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반복 연구를 통해 일반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성소수자, 비정규직·NGO 활동가, 위기 노동자, 가정폭력·여성, 성폭력, 다문화, 탈북민, 국가 폭력, 학대 아동, 위기 청소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10년 이상의 상담 경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옹호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인 상담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옹호활동에 관한 공통 개념을 도출하였다. 면접 대상을 상담전문가로 한정 한 이유는 옹호활동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험이 풍부한 상담 전문가로부터 옹호활동에 관한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옹호활동에 관한 시사점을 더 많이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동반자나 Wee Project처럼 우리 상담 영역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옹호활동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소속 기관의 방침이나 역할 갈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는 다양한 발달 단계의 상담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발달 단계와 상담 환경에 있는 상담자들을 위한 교육의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강진령, 이종연, 손현동 (2007). 학교상담자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과 대처방법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5(1), 17-27.
- 김미진, 권경인 (2019). 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역량과 상담자 발달수준, 작업동맹 그리고 상담성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20(2), 67-87.
- 김용석 (2010).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1-39.
- 민경화, 최윤정 (2007).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 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8(4), 1291-1307.
- 민문경, 안현의 (2014). 사회 인지 관점에 따른 사회 정의 관심과 실천 모형의 검증: 국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 133-154.
- 민문경, 이나빈, 안현의 (2015). 공감 능력이 사회 정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4), 575-594.
- 박광배 (2000). *다차원척도법*. 서울: 교육과학사.
- 설경옥, 임정임 (2013). 청소년동반자의 직무환경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집단자존감과 소명의식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187-201.
- 양미진, 이동훈, 고흥월, 김영하, 남현주 (2012).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 *상담학연구*, 13(3), 1181-1209.
- 이소연, 서영석, 김재훈 (2018). 사회정의에 기초한 진로상담 및 직업상담: 상담자 역할과 상담자 교육에 대한 시사점. *한국심리*

-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515-540.
- 임은미 (2015). 학교장면에서의 옹호상담 방안 탐색. *교육학연구*, 53(3), 119-140.
- 임은미, 여영기 (2015). 사회정의 상담: 저출산 시대 진로진학상담의 새로운 방향. *교육총합연구*, 13(3), 141-161.
- 임은미 (2016). 한국 상담자를 위한 사회문제 옹호 척도(SIAS)의 타당성 검증. *상담학연구*, 17(4), 51-70.
- 임은미 (2017). 한국 상담자를 위한 사회정의 옹호역량 척도(SJACS-K)의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8(6), 17-36.
- 임은미, 구자경 (2019).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서울: 학지사.
- 임은미, 강혜정, 구자경 (2018). 일반 상담역량, 다문화 상담역량, 사회정의 옹호상담역량의 구조적 관계 및 잠재집단 탐색. *상담학연구*, 19(5), 209-232.
- 정안숙 (2015). 현대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역할: 공동체심리학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3), 667-683.
- 최가희 (2018).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49-271.
- Albee, G. W. (2000). The boulder model's fatal flaw. *American Psychologist*, 55(2), 247-248.
- Bedi, R. P. (2006). Concept mapping the client's perspective on counseling alliance form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26-35.
- Carrola, P. A., & Brown, C. H. (2018). Integrating the 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counseling competencies in correction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or Leadership and Advocacy*, 5(2), 109-121.
- Constantine, M. G., Hage, S. M., Kindaichi, M. M., & Bryant, R. M. (2007). Social justice and multicultural issues: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and training of counselors and counseling psychologis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5(1), 24-29.
- Darcy, M., Lee, D., & Tracey, T. J. G. (2004). Complementary approaches to individual differences using paired comparisons and multidimensional scaling: Applications to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139-150.
- Fickling, M. J., & González, L. M. (2016). Linking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social justice through advocacy. *Journal of Counselor Leadership and Advocacy*, 3(2), 85-94.
- Gnanadesikan, R. (1997). *Methods for statistical data analysis of multivariate observations* (2nd ed.). New York: Wiley.
- Goodman, L. A., Liang, B., Helms, J. E., Latta, R. E., Sparks, E., & Weintraub, S. R. (2004). Training counseling psychologists as social justice agents: Feminist and multicultural principles in ac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6), 793-837.
- Ivey, A. E., & Collins, N. M. (2003). Social justice: A long-term challenge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1(3), 290-298.
- Johnsen, J. A., Biegel, D. E., & Shafran, R. (2000). Concept mapping in mental health: Uses and adapt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1), 67-75.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California:

- Sage.
- Kiselica, M. S. (2004). When duty calls: The implications of social justice work for policy, education, and practice in the mental health profess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6), 838-854.
- Kiselica, M. S., & Robinson, M. (2001). Bringing advocacy counseling to life: The history, issues, and human dramas of social justice work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9(4), 387-397.
- Kruskal, J. B. (1964). Multidimensional scaling by optimizing goodness of fit to a nonmetric hypothesis. *Psychometrika*, 29(1), 1-27.
- Leibowitz-Nelson, S. B., Baker, S. B., & Nassar, S. C. (2020). 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counseling competencies: institutional interventions for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or Leadership and Advocacy*, 7(1), 42-54.
- Lewis, B. L. (2010). Social justice in practicum training: Competencies and developmental implications.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4(3), 145-152.
- Lewis, J. A., Ratts, M. J., Paladino, D. A., & Toporek, R. L. (2011). Social justice counseling and advocacy: Developing new leadership roles and competencies. *Journal for Social Action in Counseling & Psychology*, 3(1), 5-16.
- Mallinckrodt, B., Miles, J. R., & Levy, J. J. (2014). The scientist-practitioner-advocate model: Addressing contemporary training needs for social justice advocacy.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8(4), 303-311.
- Miller, M. J., Sendrowitz, K., Connacher, C., Blanco, S., Muñiz de la Peña, C., Bernardi, S., & Morere, L. (2009). College students' social justice interest and commitment: A social-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4), 495-507.
- Miller, M. J., & Sendrowitz, K. (2011). Counseling psychology trainees' social justice interest and commi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159-169.
- Overholser, J. C. (2010). Clinical expertise: A preliminary attempt to clarify its core elements.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40(3), 131-139.
- Ramírez Stege, A. M., Brockberg, D., & Hoyt, W. T. (2017). Advocating for advocacy: An exploratory survey on student advocacy skills and training in counseling psychology.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11(3), 190-197.
- Ratt, M. J. (2009). Social justice counseling: Toward the development of a fifth force among counseling paradigms.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48(2), 160-172.
- Ratts, M. J., DeKruyf, L., & Chen-Hayes, S. F. (2007). The ACA advocacy competencies: A social justice advocacy framework for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1(2), 90-97.
- Ratts, M. J., Singh, A. A., Nassar-McMillan, S., Butler, S. K., & McCullough, J. R. (2016). 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counseling competencies: Guidelines for the counseling profess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 and Development*, 44(1), 28-48.
- Speight, S. L., & Vera, E. M. (2008). Social justice and counseling psychology: A challenge to the profess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4th ed.) (pp. 54-67). Hoboken, NJ: Wiley & sons.
- Sue, D. W., & Sue, D. (2011). *다문화 상담 - 이론과 실제 -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5th ed.}*. (하혜숙, 김태호, 김인규, 이호준, 임은미 역). 서울: 학지사 (원전 2008년 출판).
- Toporek, R. L., Lewis, J. A., & Crethar, H. C. (2009). Promoting systemic change through the ACA advocacy competenc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7(3), 260-268.
- Tracey, T. J. G., Lichtenberg, J. W., Goodyear, R. K., Claiborn, C. D., & Wampold, B. E. (2003). Concept mapping of therapeutic common factors. *Psychotherapy Research*, 13(4), 401-413.
- Trochim, W. M. K.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1), 1-16.
- Trochim, W. M. K., & McLinden, D. (2017). Introduction to a special issue on concept mapping.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60, 166-175.
- Trusty, J., & Brown, D. (2005). Advocacy competencies for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8(3), 259-265.
- Vera, E. M., & Speight, S. L. (2003). Multicultural competence, social justice, and counseling psychology: Expanding our rol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1(3), 253-272.

원 고 접 수 일 : 2021. 04. 02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5. 17

게 재 결 정 일 : 2021. 06. 08

Counselors' Approaches to Advocacy in Korea: A Concept Mapping

Min-Jung Kim

Hanna Choi

Womb Psychotherapy & counseling cente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common concepts in counselors' approaches to advocacy. For this purpose,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counseling experts. A total of 563 advocacy-related idea statements were identified, which were combined and edited into 76 statements. A concept map consisting of two dimensions and five clusters emerged. First, research participants were divided along the dimensions of emotional approach-behavioral approach, and client change-environmental change. Next,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nd the contents were classified into five clusters: Psychological Advocacy; Social Structural Approach to Clients; Client Relationship Network and Social Resource Connection; Client Protection and System Constructing; and Social Contribution as a Counseling Expert. Finally, the significance ratings of each statement indicated that cluster 1, psychological advocacy, had the highest rating.

Key words : advocacy, advocacy counseling, social justice counseling, social justice advocacy counseling, concept mapping